

# 북스

Books

## 벽은 둥글게·바닥은 온돌마루... 어린이도서관 건축의 아름다움

### 기적의 도서관

#### 정기용 지음

도서관이 생기자 아이들이 물러들었고, 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 모든 변화는 지난 2003년 순천에서 시작됐다.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이 10억여원을 들여, 순천시 해룡면 상삼출장소 옆 3300㎡의 사유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의 기적의 도서관을 만들어 시에 기부했다. 이후 제주, 서귀포, 진해, 정읍, 김해 등 국내 곳곳에서 들불처럼 기적의 도서관 건립 운동이 펼쳐졌다. 그 중심에는 건축가 정기용이 있었다.

국내 공공건축에 훈기를 불어넣고 있는 정기용의 신간 '기적의 도서관'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과 손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설계한 건축가로 유명한 그는 건축의 철학, 친환경성을 중시한다. 생태적 건물을 위해 흙을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고, 주류 건축가로서는 드물게 지역의 공공건축물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적의 도서관 설계에 참여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해 전북 무주 부남면의 천문대 말린 주민 자치센터와 환경 친화적인 학교 건물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달팽이 도서관 등이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했다.

### 나는 격류였다

#### 고은 지음

매년 시월이면 많은 이들이 부른 기대를 품고, 초조하게 고은(77) 시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소식을 기다린다. 막상 그는 태연한 데 말이다. 우리는 노벨상이라는 화려한 이름에 이끌려 정작 그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 온 측면이 있다. 따져보면 그는 시인으로, 예술가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늘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 왔다.

고은 시인의 삶과 시론을 동시에 보여주는 산문집 '나는 격류였다'가 발간됐다. 시인이 서울대 초빙교수로 맡은 강좌를 비롯한 국내외 강연 내용과 기고문, 일본 석학 와다 하루키와의 대담 등을 묶어 새롭게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는 그가 2003년 이후 7년간 참여한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 담겨있다.

건물이 들어서기 전 순천 기적의 도서관 부지에 대해 그는 "국내 여타 도시의 상투적인 공원을 닮았다. 최소한의 법적 시설 기준을 간신히 만족한 모습이 차가운 공문서와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 단지과 단독 주거지 사이에 놓여, 아이들이 걸어서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최상의 입지였다고 평했다.

그는 직사각형과 타원형이 균형을 이루고, 건물 상부에 발나랏마루 가는 원형 창을 뚫은 흡사 요술상자와도 같은 기적의 도서관을 설계했다. 이 도서관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 이 또한 그의 아이디어였다.

그는 "책을 보기 전에 손을 닦는 것은 책에 대한 예의이며, 신발을 벗으면 집에서 처럼 낯설지 않게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서관 바닥은 온돌마루로 만들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도서관 내부에는 바닥의 높이가 낮은 '오목공간'을 만들어 아이들이 부드러운 소파에 기대거나 엎드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진해, 제주, 서귀포, 정읍, 김해 등지의 기적의 도서관 설계·건축 과정이 담겨있다. 공원 속 정자 형태로 만든 진해 도서관, 하늘과 대지를 주제로 한 제주 도서관, 오름과 소나무를 조화롭게 형상화한 서귀포 도서관 등 전국의 기적의 도서관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관련 사진과 스케치, 입면도, 단면도 등을 곁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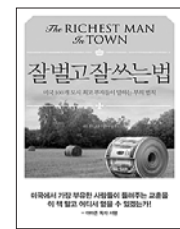
〈현실문화·2만5000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기고문·강연·대담 등에 담긴 시인의 삶·역사...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아이들이 둥근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건축 설계가 돋보인다. 〈현실문화출판사 제공〉

## 새책



▲**잘 벌고 잘 쓰는 법=부자 전문가인 랜든 존스가 2년간 미국 100개 도시에서 자수성가한 '최고 부자'들을 찾아 직접 인터뷰했다. 최고 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보통 사람들과는 무엇이 다른지,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등 현대 미국 부자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미국은 물론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근본적인 부의 철학을 이야기한다.** 〈부키·1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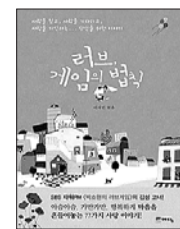
▲**고아로 자란 코끼리의 분노=철학자이자 시인인 박이문씨의 신작 시집. 생명, 일상, 인생, 미국 그리고 서정 등 4부로 나뉜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인간의 광기를 말미암은 자연의 파괴에 안타까워하며 직설적인 화법으로 환경 위기를 고발하고, 인간의 야만을 꾸짖는다. 우리 모두의 존재 의미는 무엇이고, 그 의미를 찾고 유지하는 것이 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능할지 깊이 고민할 수 있게 한다.** 〈미다스북스·1만2000원〉



▲**비타민 F=현대 사회를 사는 인간들의 성장통을 꾸준히 그려온 일본 작가 시게마츠 기요시의 나오키상 수상작. Family, Father, Friend 등 'F'로 시작되는 단어를 주제로 한 단편 일곱 편을 실었다. 각 작품은 공통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곤경에 처한 초라한 남성 가정들의 애환을 그린다.** 〈양철북·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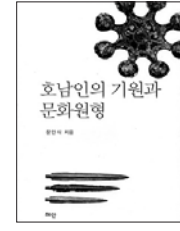
▲**네그리의 제국 강의='다중', '공동체' 등의 책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가 제국의 시대에 벌어지는 '운동들'에 대해 설명했다. 전 세계를 횡단하며 펼친 서른 여섯 번의 순회강연 내용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전쟁, 예술, 포스트사회주의의 전략 등 깊이 있는 논의를 담고 있다.** 〈갈무리·1만9000원〉



▲**러브, 게임의 법칙=SBS 파워FM '박소현의 러브게임'의 감성코너, '러브, 게임의 법칙' 방송 내용을 엮었다. 이미 끝나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며, 현재 진행중인 사랑에 설레하며, 한때 사랑했던 이를 원망하며 써 내려간 청취자들의 애뜻하고 아릿한 사랑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글과 함께 방송에 소개했던 플레이 리스트(BGM)도 함께 실어 사랑을 전하는 잔잔한 음악도 접할 수 있다.** 〈예담·1만2000원〉



▲**공자 이야기=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공자 집안 '공부(孔府)'의 이야기. 중국에 살고 있는 공자의 유일한 적손인 가란이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공자 집안의 요리와 제사, 후손들이 살아온 이야기와 2500년에 걸친 공자 집안의 계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공자세가보(孔子世家譜)'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선·1만5000원〉



▲**호남인의 기원과 문화원형=문안식 조선대 사학과 객원교수가 호남인의 기원과 문화원형에 대해 고찰했다. 오늘날 호남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원과 문화원형을 기존의 선진적인 주인의 남하와 문화적 영향에서 구하지 않고, 토착민이 주체가 되어 후기 구석기시대 내재적인 발전을 지속해온 과정을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안·2만6000원〉


##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이은 다룬 역사연구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이은을 다룬 역사연구서 '마지막 황태자'(전 3권)가 출간됐다. 소설가 겸 사학자 송우혜씨가 치밀한 자료 검증을 바탕으로 탄생부터 멸망까지 대한제국의 실체를 소설 형식을 빌려 재구성했다.

시리즈 1권 '못생긴 엄상궁의 천하'에서는 이은의 생모인 엄상궁의 행적을 조명, 그녀가 상궁 시절 '아관파천'을 결행한 주역이었다고 전한다.

2권 '황태자의 동경 인질살이'에서는 이은의 일본 인질살이를, 3권 '왕세자 혼혈결혼의 비밀'은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다친 이은의 고난을 그린다. 〈푸른역사·1만3600~1만4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행동하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